오늘의 게시판

물처럼 바람처럼 展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행사

〈10일〉

▲원도심 특화거리조성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용역 중간보고회=오후 3시 목포시청 상황실.

〈11일〉

▲환경사랑 서구녹색어머니회 꽃길조성 씨앗파종=오전 9시30분부터 풍암지구 마재우체국 앞. 마재우체국~월드컵경기장까지 코스모스 씨앗을 심을 계획.

▲지식혁신 마인드 함양 및 확산을 위한 부구청장과 대화=오후 2시 남구청 회의실.

▲한중국제산업단지 추진위원회 발족식=오전 11시 무안군청 회의실.

▲외국인학교·병원 유치 용역보고회=오전 11시 전남도청 투자상담실.

전시

▲물처럼 바람처럼 展=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 분관. 한국화가 박은용·오견규·박희석씨 등의 작품 40점 전시.

▲'선(禪) 달마화'전=12일부터 18일까지 목포문화예술회관 6전시실. 한국화가 성인호씨의 달마도 작품과 자기 등 50여점 전시.

▲'제3회 구민의 날 기념 현대작가 초대전'= 21일까지 광주시 남구문예회관 전시실. 광주 지역 작가 26명의 작품 전시.

▲살레시안 50주년 기념 살레시안전=15일까지 자미갤러리.

▲주제가 있는 도서전=13일까지 일곡갤러리.

▲아름다운 우리그릇 생활자기전=16일까지 일곡갤러리.

▲송윤 서예원전=11~17일까지 메트로갤러리.

▲아름다운 그림 걸기전=15일까지 광주신세계갤러리.

▲우제길전=6월30일까지 우제길미술관.

▲조선대학교 60주년 기념 '조대민중미술운동사'전=15일~26일까지 조선대미술관.

▲'땅 사람 그리고 꿈'展=17일까지 지산갤러리. 지산갤러리 기획전으로 영상매체를 활용해 작업하고 있는 이수영·방우성·이이남씨 등 3명의 작품을 한자리에 전시.

▲국제현대미술 확산전=6월2일까지 보성군립백민미술관. 중국 11명·일본 11명·한국 30명 등 52명의 작가들의 예술 전 분야에 걸친 작품 전시. 061-853-0003

▲광주시립미술관 '즐거운 미술여행'전=28일까지 시립미술관. 인터랙티브 가상현실 아트·동화나라·미술나라 등 어린이 체험형 행사.

▲'그림속 동물 읽기'전=8월20일까지 시립미술관, 하정웅 명예관장이 기증한 작품 중 동물이 등장하는 작품 45점 전시 062-525-0968

공연

▲최재륜 작곡 발표회=10일(수)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마임놀이=11일(목) 오후 3시 해남문화회관 다목적실. 초등학생 문화체험 행사.

역사속의 오늘

▲조지 워싱턴 대륙군의 최고사령관에 취임(1775)

▲영국, 처칠 총리의 연립내각 성립(1940)

▲베를린 함락(1945)

▲이준열사 기념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제막(1972)

▲프랑스 미테랑 사회당 당수, 대통령에 당선(1981)

뉴스퀴즈

11. '1천만달러' 소녀로 불리는 이 여자선수가 최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린 남자대회인 한국프로골프(KPGA) 겸 아시아프로골프투어 SK텔레콤오픈에서 처음으로 컷 통과에 성공해 화제에 올랐습니다.

국내에서 여자 골퍼가 남자 대회에서 컷을 통과한 것은 지난 2003년 SBS최강전의 박세리(CJ)에 이어 두 번째로, 이 선수는 7차례 성대결에서 모두 고배를 마셨다가 성공해 7전8기를 이뤄냈습니다.

이 선수는 누구일까요?

① 위성미 ② 김미현 ③ 장정 ④ 안시현

참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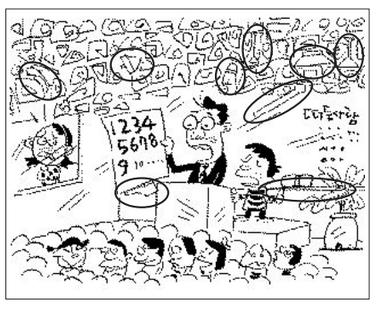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등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보내실 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퀴즈담당자 앞 우편번호 501-711

숨은그림찾기

< 20 >



▲ 지난주 정답

성냥개비, 작은물고기, 못, 셔틀콕, 팽이, 바늘, 양주잔, 구두, 대접

찾아보세요 가지, 바늘, 고추, 립스틱, 팽이, 아이스크림, 대접, 열대어, 제비

◀말 잘듣는 꼬마

어느날 성당의 신부님이 꼬마들만 모인 자리에서 말했다.

"여러분 천국에 가고 싶나요? 천국에 가고싶은 사람은 손을 드세요."

모든 아이들이 손을 들었는데 자세히 보니 구석에 있는 한 명은 손을 들지 않았다.

그러자 신부님이 재차 물었다

"얘야, 너는 왜 손을 안 드니? 천국에 가고싶지 않니?"

그랬더니 그 꼬마가 하는말,

"엄마가 성당 끝나면 곧바로 집으로 오랬어요."

그림 속에 숨겨진 사물들을 찾아보세요. 찾은 사물을 그림에 표시한 후 매주 화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주시면 정답자를 추첨, 상품권(2만원)을 드립니다.

▲보내실곳 광주시 동구 금남로 2가 20-2번지 광주일보사 여론매체부

▲당첨자

양기완·광주시 서구 풍암동

이영춘·광주시 광산구 산월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5월 10일(음 4월 13일 己亥)

子 36년생 일고는 있으나 봄은 멀지 않다. 48년생 뜻밖의 기회가 오니 적극적인 참여로 기회를 잃지 마라. 60년생 혼자 하는 일은 재미가 없다 서로도우라. 72년생 남의 말은 경청하되 결정은 혼자 하라. 84년생 자신 있게 추진하라. 행운의 숫자 : 23, 43

丑 37년생 순풍에 항해하나 역풍에 대비는 해야 하리라. 49년생 처가나 시가 편에 애사가 생길 수 있다. 61년생 처음 가는 길이니 살펴서 행동해야 한다. 73년생 지인의 협조가 있다. 85년생 풍파를 만나니 마음을 단단히. 행운의 숫자 : 02, 41

寅 38년생 세 번 생각하고 행동하면 명예는 지키리라. 50년생 새로운 인연은 있으나 큰 기대는 거두어라. 62년생 다시 한번 도전의 기회가 보인다. 74년생 새로운 직업과 인연이 생기니 초심은 잃지 않아야 하리라 행운의 숫자 : 18, 32

卯 39년생 주변이 산만하고 어지럽다. 51년생 의외로 재물이 생기고 영전 승진하는 격이나 이성문제는 조심해야. 63년생 재물의 손실, 사기, 실물을 조심하라. 75년생 정신이 혼미하니 심상의 안정을 취하라. 행운의 숫자 : 10, 42

辰 40년생 재물이 사방에 있으나 내 것이 아니다. 52년생 자기 입을 조심하라 벌어놓은 신용이 무너질까 걱정된다. 64년생 바빴던 일손을 놓고 가족을 돌아보라. 76년생 모든 일이 순조로우나 처자의 건강을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06, 28

巳 41년생 특별히 건강에 유념해야 뒤탈이 없으리라. 53년생 일 거수 일 투족을 조심하고 마음까지도 조심해야. 65년생 구설이 따르고 신체의 불편이 발생할 수도 있다. 77년생 주변의 이성 때문에 오해가 생길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3, 41

午 42년생 하는 일마다 불편한 인연이 따를 수가 있다. 54년생 뜻밖의 협조가 있으나 결과는 미미하다. 66년생 생활의 무료함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변화를 가져라. 78년생 암중모색을 하나 쉽지는 않다. 행운의 숫자 : 24, 27

未 43년생 불연이면 친지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으니 이해하며 지내라. 55년생 부부의 애정이 소록소록 살아난다. 67년생 의심스런 인연을 만나니 생각하며 행하라. 79년생 또 다른 이성을 만날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20, 39

申 44년생 남편과의 불만과 불평이 나타나나 본인의 잘못이다. 56년생 서류와 윗사람으로 인해 불편이 있으리라. 68년생 많은 고역이 따르며 시간이 걸릴 수 있다. 80년생 재물과 처 사이에 갈등이 생기니 중정의 마음을 가져라. 행운의 숫자 : 22, 16

酉 45년생 기력이 쇠하니 심장을 살펴보라. 57년생 식구들과 떨어져 지낼 수도 있고 애사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주변을 살펴봐야. 69년생 순류에 항해하는 격이다. 81년생 새로운 일이 생길 수 있으나 신중하게 결정하라. 행운의 숫자 : 15, 33

戌 46년생 부부간의 언쟁을 현명하게 넘겨야, 불연이면 극한 상황도 예상 못한다. 58년생 금전 사기 대소비가 있을 수도 있고 직업 변경도 우려된다. 70년생 학문의 발전이 있다. 82년생 큰 성공의 기틀이 마련된다. 행운의 숫자 : 11, 34

亥 47년생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생길 수 있다. 59년생 크게 상심할 일이 생기니 올바른 행실을 해야 할 것이다. 71년생 어부지리는 있으나 조그맣다. 83년생 절대 손윗사람과 신사나 동업은 신중하게 결정하고 자세히 살펴보라. 행운의 숫자 :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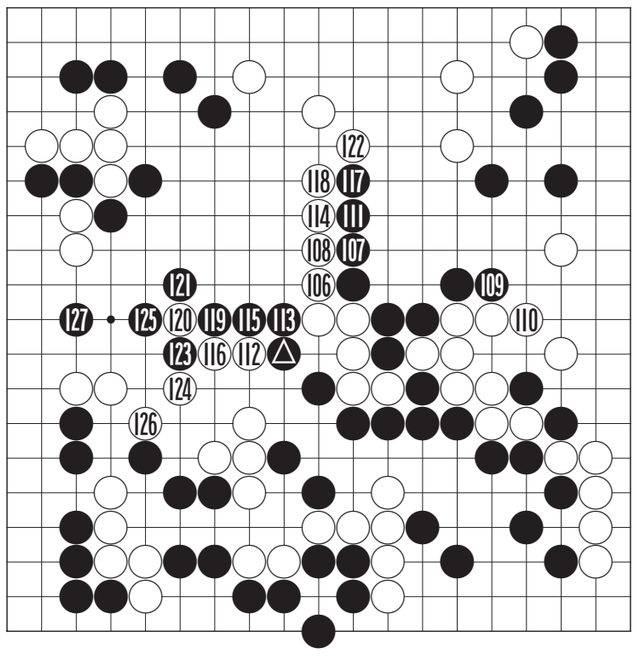
www.cafe.daum.net/sajoo114 ☎011-632-6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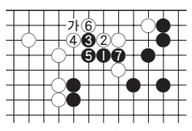
posco 광양제철소장배 바둑대회

〈최강부 개인전〉

'극약처방' 준결승 제 7보(106~127)

白 김복현(5단) 〈가야기우회〉 黑 기용성(5단) 〈하동화력발전소〉





〈참고도〉

전보에서 흑이 실수를 하기는 했으나 ▲로 가르고 나와 아직도 좋은 형세다. 그러나 바둑은 결정타를 날릴 수 있을 때 확실히 끝내야 한다. '죽었다 살아나는 것이 바둑'이라는 말처럼 죽은 돌도 끈질긴 생명력을 갖고 있어 언제 돌발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

김복현 5단은 기회를 참고 기다리며 끈질기게 118까지 밀어 결정타를 피하고 있다. 흑이 119로 민 것은 당연해 보이지만 기분에 치우친 감이 없지 않다. 김 5단은 이 틈을 노려 120으로 젖힌 뒤 122로 상변을 지켜버렸다. 이기면 수훈갑이요 지면 패착이라 할 수 있는 극약처방이다.

흑이 이런 변수를 없애려면 참고도의 흑 1로 상변을 먼저 급습하여 7까지 두어야 했다. 이랬으면 집도 크고 '가'에 끊는 맛도 있다.

그러나 실전도 127까지 백이 곤란하다. 아무튼 김 5단의 투지가 놀랍다.

〈오규철 9단·본지 바둑해설위원〉

생활의중심 SK telecom KT&G 전남본부

바둑소식

오규철 9단, 8강행 좌절

오규철 9단이 지난 8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3기 전자랜드배 왕중왕전 16강전에서 이창호 9단에게 246수 끝에 흑 11집 반패를 당해 8강행이 좌절됐다.

박정상 5단도 박승철 5단에게 173수만에 흑 불계승을 거두고 8강에 합류했다.

8강에 오른 이창호 9단은 조혜연 7단대 김진우 2단간 대국 승자와, 박정상 5단은 루이나웨이 9단과 격돌한다.

총 상금 규모 5억2천500만원인 전자랜드배의 우승 상금은 4천만원이다. 제한시간은 각 10분, 40초 초읽기 3회가 주어진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굿모닝 잉글리쉬 <642>

I was thinking exactly the same thing

나도 같은 생각이야

A:Let's call it a day. We've done enough today.
B:Did you read my mind?
I was thinking exactly the same thing.
A:Good! Let's go out and have a drink.
B:Good idea!

A:늘 여기까지 하자. 오늘 할 만큼 했다.
B:너 내 마음을 알았구나? 나도 같은 생각이야.
A:그래! 우리나가서 한잔하자.
B:좋은 생각이야!

Let's call it a day(오늘은 이만 합시다.)
= Let's call it guits (for the day)
= Let's go home.
= let's get out of here.
I was thinking exactly the same thing.
= those were my thought exactly.

〈동아 외국어학원 제공〉
www.donga.tv ☎ 222-6253

오하이오 니혼고 <642>

'着(ちゃく)メロ'って知(し)ってる?

'착신멜로디'라고 알고 있니?

A:'着(ちゃく)メロ'って知(し)ってる?
B:ああ、知ってるよ。今のケータイは、みんな着信の時に 鳴(な)る音の代(か)わりにメロディーにしているでしょ。
A:□來(じゅうらい)の着信(ちゃくしん)の音(おと)は、'ピピピッ'ってうるさいからね。
B:ストレスになる人(ひと)も多(おお)いって話(はなし)だから。自分の好(す)きなメロディーだったら,そうはいかないからね。

A:'착신멜로디'라고 알고 있니?
B:아-, 알고 있어. 요즘 휴대폰은 모두 착신 시에 울리는 소리 대신에 멜로디로 하고 있잖아.
A:종래의 착신 음은 '삐삐삣'하고 시끄러우니까.
B:스트레스가 되는 사람도 많다는 얘기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멜로디라면 그렇게는 안 될 테니까.

ケータイ : 휴대전화
鳴(な)る : 울리다, 울다
音(おと) : 소리

〈광주 일본어 문화원 제공〉
http://kglobal.wo.to ☎ 228-2545

니하오 쭝구워 <390>

最近工作怎么样?

요즘 일은 어떠세요?

A:最近工作怎么样?
[illegible]
B:还可以. 你呢?
[illegible]
A:我也是.
[illegible]
A:요즘 일은 어떠세요?
B:그런대로 괜찮습니다. 당신은요?
A:저도요.

最近 [illegible]
工作 [illegible]
怎么样 [illegible]
可以 [illegible]
呢 [illegible]

〈공자아카데미〉
www.cis.or.kr ☎ 02-3452-6775

한자 이야기 <260>

執行猶豫 (집행유예)

잡을 집, 행할 행, 오리려 유, 미리 예

집행유예(執行猶豫)는 집행을 보류하는 것이다. 유예(猶豫)는 전설상의 동물로 머뭇거리기를 잘하는 원숭이와 맘보코끼리이고, '유예'라는 단어는 여기서 유래한다.

집(執)은 수갑(⇕,幸)을 차고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모습에서 '잡다'를 의미한다. 행(行)은 십자로(十)를 나타낸 것으로 길, 가다를 의미한다. 유(猶)는 견(犬)+추(酋)로, 원래 의심이 많은 원숭이의 일종이다. 예(豫)는 상(象)+여(予 : 音符)로 느릿하게 쉬고 있는 코끼리이다.

3년 이하의 징역(懲役) 또는 금고의 형이 선고될 경우에,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인정되면 일정기간 그 형(刑)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가 집행유예이다. 예를 들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말은, 1년간 교도소에서 실형(實刑)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가두지 않고 풀어 줄테니 2년간 조심하여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1년 동안 교도소에서 살았던 것과 똑같이 인정해 준다는 뜻이다. 이 집행유예 기간동안이라 하여도 일반적 사회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다. 다만 공무원은 될 수 없다. 하지만 해외여행 정도는 자유롭게 갈수 있다.

〈한예원(韓睿嫄)〉
조선대학교 고전연구원 ☎ 230-6105